

<2016년 직할교구 말사 주지교육 인사말>

인 사 말

온 산하를 오색으로 물들이고 이제는 저마다의 결실을 이루어 마음의 풍요에 다다른 절기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해의 성취를 이웃과 나누면서, 진정한 수확의 완성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덕들을 항상 새로운 정진의 바탕으로 삼으시면서, 가람수호와 본연의 수행정진, 그리고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직할교구 주지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들을 마주하면서,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지혜로운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종단을 대표하는 직할교구의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역 곳곳의 마음들을 아우르면서 소임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다양한 요구 또한 그만큼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에만 의존하겠다는 안이함으로는 온전한 부응이 쉽지만은 않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이 초심의 단단한 서원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하는 현명한 가치를 찾아보는데 유익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찰과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소통하고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종교적 책무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할교구는 현장 일선에서 정진하시는 주지스님과 함께 어린이청소년포교, 수도권포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합심하고, 의미있는 성취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에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종단

이 한걸음씩 진전하는 것이기에, 종단적으로도 큰 모범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최근 옛 봉은사의 경내이자 한전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산 타워 꼭대기에 다시 아파트 20층을 더 올린 것과 같은 위압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입니다. 이러한 대형 개발을 서울시가 상식을 벗어나 초고속으로 승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강탈당한 우리의 토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에서는 경건해야 할 신도들의 기도와 신행이 그대로 드러나 크게 위축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미 건물의 그림자로 경내가 뒤덮여 성보문화재 큰 훼손을 가할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건물 수명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수백 년을 넘어 천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에, 봉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 모든 신행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종단은 서울시의 졸속행정과 재벌특혜 중단, 그리고 성보와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수고로움이 향기롭고 청명한 결실을 이루듯,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덕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사회에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